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서 농촌 환경개선 '첫발'

[조준성]

발대식 뒤 바로 수거 활동 나서
영농 폐비닐·방치 쓰레기 정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5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클린농촌 만들기)' 발대식을 계기로 전문지원기관 역할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5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클린농촌 만들기)' 발대식을 계기로 전문지원기관 역할을 본격화한다

이날 태안군 소원면 모항1리 일원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클린농촌단' 공식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이 열린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도, 태안군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이동해 영농 폐비닐과 방치 쓰레기를 함께 수거했다.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 사업의 출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농어촌에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을 지역 주민이 직접 정리하는 사업이다.

마을 주민이 중심이 돼 '클린농촌단'을 꾸리고, 생활환경을 정비해 농촌 정주 여건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을 우선으로 총 140개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현장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이행 지원을 맡는다. 안전한 수거 방법과 분리배출 요령을 알리고, 농어촌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한다.

아울러 현장 컨설팅과 추진 상황 점검, 성과 관리 등을 통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 클린농촌단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 현장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

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는 문화가 농어촌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뒷받침한다.

주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는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공사는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현장 중심의 교육·홍보·이행 지원을 통해 주민과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